

#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 사진이라는 '무대'

아시아 현대 사진: 왕칭송, 정연두展  
9. 20~2015. 2. 1 대구미술관

동시대 미술에서 장르적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2000년대 이후 다시 매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지극히 평면적인 매체인 사진의 경우, 설치미술이나 미디어아트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의 세계도 넓다. 사각 프레임 속에 인화지 위에 맺히는 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컨텍스트와 프로세스의 실험으로서의 사진은 그 표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정연두와 왕칭송은 최근 10여 년간 비엔날레나 국제전에 초청 받으며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각기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 작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작가는 모두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다. 정연두는 조소를, 왕칭송은 회화를 했다. 다시 말해 '정통 사진'은 아닌 것이다. 이들에게는 잘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찍느냐가 화두다. 컨템포러리 아트씬의 문맥에서 사진 이후의 사진을 실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기 작가가 가진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아시아 현대 사진의 대표주자

정연두와 왕칭송은 주어진 풍경이나 인물을 그대로

촬영하지 않는다. 이들은 감독 혹은 PD가 되어 특정한 장면을 연출한다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왕칭송은 스스로 모델이 되기도 한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는 대머리에 괴묘한 분장까지 더해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작가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극락이나 사후 세계 같은 초현실적인 배경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수십 명의 모델이 동원되고 거대한 세트장을 만들어 완성된 그의 사진 한 컷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 현실적 딜레마가 숨어 있다. 왕칭송의 풍자적 시각은 중국 1세대 현대사진 작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국의 사회격변기의 경험에 기인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자신의 모습을 부처상처럼 디지털로 합성한 초기작부터 <One World, One Dream>(2014)까지 16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대구미술관 어미홀에 설치된 <Soriasis>(2004)는 10년 전 제작했던 <Competition>(2004)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 홍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했던 <Competition>을 재연했다. 작가가 직접 한글로 300개의 전단지 써서 가로 18m, 세로 7m의 벽면에 겹쳐 붙여 설치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특히 <Farting>은 관객 참여형의 설치 작품이다. 중국 전통 축제에서 종종 사용되는 대형 용 모형과 수백 개의 풍선, 일상용품으로 전시장 전체를 가득 채운 후, 그 장면을 작가가 휠체어에 앉은 채 사진으로 다시 한 번 기록했다. 마치 왕칭송의 작업 현장에 들어 온 것처럼 관객도 작품을 무대 삼아 전시장의 한쪽에 포즈를 잡아보게 된다.

왕칭송과 마찬가지로 세트 촬영을 하면서도, '수공'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사진을 선보여 온 정연두는 잘 짜인 구성으로 더욱 정돈된 분위기의 전시장을 연출했다. 전시장에 또 한 번 네모반듯한 중정 형태의 가벽을 만들었다. 전시장 벽면에는 <로케이션> 연작을 걸고, 가벽의 바깥쪽은 <윈더랜드>, 그리고 안쪽은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후 <상록타워>를 띄엄띄엄 걸어 아파트의 밤풍경처럼 보이게 했다. 작가가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고, 가상과 현실의 충돌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근작에서 초기작으로 역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노련함이 돋보인다. 또 다른 전시장은 <보라매 댄스홀>을 설치하고 사교댄스 음악을 틀어 놔다. 벌써 13년 전의 작품이지만, 올 상반기에 개최했던 플라토의 개인전에서 크레용팝 무대를 만들었던 것과 오버랩되었다. 동시대 미술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는 단지 '무대'일 뿐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일까.

/ 호 경 운



위·정연두 <보라매 댄스홀> 혼합재료 가벽크기 2014,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서른 두 가구의 가족사진을 담은 <상록타워>(2001), 아이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재현한 <윈더랜드>(2005), 꿈과 현실의 경계를 교묘하게 보여 준 <로케이션>(2007)과 소박하게 사교댄스를 즐기는 중년 남녀의 모습을 담은 <보라매 댄스홀>(2001) 등 총 9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